

대학생들의 혼전 성허용도에 관련된 변인들*

Factors Related to Sexual Permissiv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동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윤 경 자

Dept. of Home Management, Dongeui Univ.
Assistant Prof.: Gyung Ja Yoon

〈목 차〉

I. 문제제기	IV. 연구방법
II. 선행연구고찰	V. 결과 및 해석
III. 연구문제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Using 497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exual behavi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re performed to assess best model on premarital sexual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no difference on the levels of premarital sexual behavior for males and females, except on sexual intercourse. While love for the partner and relationship aspects are best predictors for less experienced males and followed by dating experience, for less experienced females, situational aspects and their own and partner's chastity are positively and negatively related to premarital sexual behaviors of highly experienced males and females, respectively. Other variables related to sexual permissiveness, in general, by sex are also discussed.

I. 문제제기

성문화의 개방과 여성해방운동 등의 영향으로 혼

전 성행동이 과거에 비해 허용적이 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이 연구는 1994학년도 동의대학교 자체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Bauman & Wilson, 1976; King, Balswick, & Robinson, 1977; Robinson & Jedlicka, 1982; Robinson, King, & Balswick, 1972). Robinson과 Jedlicka (1982)는 1965년 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5년 간격으로 대학생들의 성행동을 조사하였는데 남녀 성별의 구별없이 성행동이 증가하였다. Udry, Bauman, 그리고 Morris(1975)는 15세 부터 44세 사이의 연령별 성행동을 조사하였는데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성들의 성행동이 다른 연령별 집단보다 가장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행동의 증가는 현대 사회의 성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혼전임신, 성폭력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혼전 성행동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국의 연구를 보면 혼전 성행동에 관하여 많은 변인들이 알려졌지만 크게 개인적, 가족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특성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Talmdge, 1985). 국내의 경우에는 혼전 성행동의 증가와 이에 따라 과생되는 사회문제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혼전 성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혼전 성행동을 청소년 비행의 문제로 파악하거나(김준호 외, 1989; 김한경, 1991) 혼전 성행동의 행태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김찬치, 1986; 도중수, 1990).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성행동의 실태를 밝혔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성행동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는 관련 변수들을 밝히는 데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혼전 성행동에 관한 연구가 설명력있는 여러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할 때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을 조사하고 혼전 성행동에 관련된 변인들을 파악하며 허용적 성행동과 혼전 성행동의 비경험자간에 나타나는 변인들의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혼전 성행동의 단계별 성취율을 예측하는 변수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혼전 성경험의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기초자료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연구에서 혼전 성행동과 관련되어 나타난 변수들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내에서도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등에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실제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선행연구고찰

1. 혼전 성행동에 관한 남녀 성차이

성별에 따른 혼전 성행동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혼전 성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Schulz, Bornstedt, Borgatta, & Evans, 1977)에서 65%의 남학생들과 56%의 여학생들이 혼전성교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68%의 남학생들과 44%의 여학생들이 혼전성교를 경험하였고(Simon, Berger, & Gagnon, 1972), Mercer와 Cohn(1979)도 224명의 대학생들의 성행동을 조사한 결과 74%의 남학생들과 60%의 여학생들이 혼전성교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Mosher(1979)의 연구에서는 혼전 성경험에서 남녀 성차이가 없었다. 데이터관계에 있는 남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수준의 혼전 성관계를 경험하고 과거에 비해 현대에 이룰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의 혼전 성경험이 많아지고 있으므로(Bauman & Wilson, 1976; Peplau, Rubin, & Hill, 1977; Robinson & Jedlicka, 1982),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혼전 성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관련 변수를 고찰하고자 한다.

2. 가족적 요소

대개의 부모들이 성에 관한 주제로 가족간에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성에 관한 비언어적 암시를 받으며 성장하고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사회화과정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부모의 성태도와 성행동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성태도가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과 나이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른 성별의 차이점은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부모의 성태도를 자녀가 인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자녀의 성태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는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성태도는 부모의 성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McNab, 1976, Darling & Hicks(1982)에서 재인용). 혼전 성행동에 관한 가족의 영향을 보면 부모의 성별, 혼전 성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 자신의 청소년 때의 혼전 성행동, 부모와 청소년자녀와의 관계 등의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혼전 성행동에 관한 가족의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며(Thornton & Camburn, 1987), 부모가 자신의 친구를 대부분 알고 있고 부모와 성문제를 의논하였을 때 딸은 아들보다 성경험이 적었다(Moore, Peterson, & Furstenberg, 1986). 또한 어머니의 혼전 성행동에 관한 허용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는 자녀의 혼전 성행동에 각각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Hovell, Sipan, Blumberg, Atkins, Hofstter, & Kreitner, 1994).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가 딸의 성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에 아들의 허용적 성행동과는 관련이 있었다(Darling & Hicks, 1982).

부모 성별에 따라서도 자녀들에게 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데 42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ibby, Gray, & White, 1978)에서 어머니의 성적기준이 아들과 딸의 성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아버지의 성적기준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청소년 때의 성행동과 자녀의 성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청소년기 성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자녀는 성별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성경험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성경험이 거의 없는 어머니를 둔 청소년보다 혼전 성행동에 관하여 제재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Newcomer & Udry, 1984).

반면에 혼전 성행동에 관한 부모의 수용태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erold & Goodwin, 1981; Lewis, 1973). 혼전 성행동에 관하여 부모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 부터의 영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혼전 성행동에 관한 부모, 형제자매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3. 관계적 요소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관계적 요소로는 데이트파트너에 대한 애정, 데이트파트너와 그 관계에 대한 헌신 등을 들 수 있다. 혼전 성경험이 없는 19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혼전 성행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약혼을 했거나 진지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집단이 부담없이 데이트를 하는 집단에 비해 파트너에 대한 애정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고 이것은 유의하게 나타났다(Christopher & Cate, 1985). 또한 혼전 성행동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데이트파트너에 대한 애정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죄의식을 적게 느꼈고 성행동에 더 관여하고 있다(D'Augelli & D'Augelli, 1977; D'Augelli & Cross, 1975).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혼전 성행동에 관한 태도에 따라 전통적, 중간, 허용적 집단의 세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데이트파트너에 대한 애정에 따라 혼전 성행동에 각각 다른 영향을 주었다. 중간집단에서는 데이트파트너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경우에 가장 친밀한 형태의 혼전 성행동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반면에 전통적 집단과 허용적 집단에서는 각각 데이트파트너에 대한 애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데이트파트너에 대한 애정은 없어도 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Peplau & Miller, 1977). 대학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Herold & Goodwin, 1981)에서도 데이트관계에의 헌신이 데이트횟수와 함께 처녀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들은 데이트관계에서 애정을 포함한 관계적 요소가 성허용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성차이에 따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애정이 있는 경우

에 더 허용적이다. Christopher과 Cate(1985)의 연구는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데에 데이트파트너에 대한 애정과 그 성행동의 의미를 파트너와 논의한 것 등을 포함하는 관계적 요소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요인이 혼전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성별에 따른 관계적 요인의 유의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4. 사회적 요소

1) 친한 친구 및 또래집단

혼전 성행동의 기준에 강한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로 또래집단을 들 수 있다. 혼전 성행동에 관여하였다고 인지하고 있는 친한 친구들의 숫자는 혼전 성행동에 관여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였으며 특히 여자들에게는 친한 친구로 부터의 인정이 친밀한 형태의 혼전 성경험을 갖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Sack, Keller, & Hinkle, 1984). 여자대학생들과 여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2%가 혼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집단의 혼전 성경험이 응답자들이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Herold, & Goodwin, 1981), 또래집단의 혼전 성경험에 관한 허용적 태도 역시 혼전 성관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chulz, et al., 1977). Teevan(197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일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이 가정은 부정적으로만 약하게 지지되었을 뿐이고, 또래 친구들 사이의 규범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친한 친구와 또래집단의 태도와 행동이 혼전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혼전 성경험에 대한 이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앙심

신앙심은 여러 연구에서 혼전 성태도와 혼전 성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ock,

Beeghly, & Mixon 1983; Herold & Goodwin, 1981; Young, 1982; Woodroof, 1985; Singh, 1980). Herold & Goodwin(1981)의 연구에서 처녀성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42%와 그렇지 않은 집단의 9%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종교적 행사에 참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신앙심이 깊을수록 혼전 성관계에 참여하지 않았다(Bock, Beegley, & Mixon, 1983; Clayton & Bokemeier, 1980; Mixon, 1983; Woodroof, 1985; Young, 1982). Libby, Gray, 그리고 White(1978)의 연구에서도 교회참석은 혼전 성허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어머니의 성기준과 가깝다고 느끼는 인식과 강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5. 상황적 요소

상황적 요소는 데이트분위기, 술에 취했다든가 등의 데이트 당시의 상황을 포함하는데 임상적으로는 혼전 성관계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변수이다. 다만 Christopher과 Cate(1985)의 연구에서 첫 혼전성교를 경험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전 성행동에 관한 상황적 요소의 유의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혼전 성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특성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3. 혼전 성허용도에 따른 각 유형별 관련 변인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IV. 연구방법

2. 용어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부산시와 대전시 소재의 5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대학생들이다. 총 552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는데 51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49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편지를 덧붙였고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회수용 봉투를 제공하였다. 본 자료의 조사는 1994년 11월에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혼전 성행동: 결혼전에 관여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

혼전 성관계: 혼전성교를 뜻하며 혼전성교와 서로 구별없이 사용되었다.

혼전 성경험: 결혼전에 관여하는 성적 경험을 뜻하며 키스에서 혼전성교까지의 모든 성행동의 범위에 대한 본인의 직접경험을 일컫는 말이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점수가 0.5 이상인 문항들을 이용하여 각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변수들과 본 연구자가 본 연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평균	범위
성별	남자	257(51.7)		
	여자	232(46.7)		
나이	18-19세	42(8.6)	21.912	18-30
	20-22세	253(51.8)		
	23-25세	172(35.3)		
	26세 이상	21(4.3)		
학년	1학년	19(3.9)	2.520	1-4
	2학년	248(50.9)		
	3학년	168(34.5)		
	4학년	52(10.7)		
데이트기간	0개월	210(46.0)	8.460	0-84
	1-6개월	92(20.1)		
	7-12개월	57(12.4)		
	13-18개월	31(6.8)		
	19-24개월	21(4.5)		
	25-30개월	12(2.6)		
31개월 이상	21(7.3)			
데이트파트너 숫자	0명	109(25.7)	2.014	0-50
	1-2명	211(49.7)		
	3-5명	80(18.9)		
	6명 이상	24(5.7)		

〈표 2〉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혼전성행동의 차이

성행동수준	평균	Median	범위	표준편차	t값
남자	2.68	3.00	0-5	2.02	4.21***
여자	1.89	2.00	0-5	1.87	

*** p < .0005

구를 위하여 고안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항들이 개발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혼전 성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혼전 성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혼전 성행동척도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키스'에서 '혼전성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질분과 포괄적인 성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을 하며 범위는 0점에서 5점까지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9$ 로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적 성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lpha = .89$ 이다. 여기에는 혼전 상관계, 결혼전의 애무, 상관계에 대한 죄의식, 처녀성/동정 등의 질문을 포함한다. 상황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6문항을 추출하였고 $\alpha = .89$ 이며 상관계에 대한 압력과 술에 취한 것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적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는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alpha = .97$ 이다. 관계적 측면은 파트너에 대한 애정, 성 접촉의 의미, 상관계의 의미, 결혼의사 등을 측정한다. 모든 척도는 5점 Likert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는데 자료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본통계를 이용하고 척도구성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t-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었다.

V.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혼전 성행동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혼전 성행동의 수준은 성별에 따라 〈표 2〉에 나타나 있다. 전반적인 성행동의 수준은 남자(M=2.68)가 여자(M=1.8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p<.0005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단계별 혼전 성행동수준을 보면 '혼전성교'의 항목에서만 남자대학생들이 여자대학생들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혼전성교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혼전 성행동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이 결과는 혼전성교를 포함한 혼전 성행동에 있어서는 남자대학생들이 여자대학생들보

〈표 3〉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 관여

성행동수준	성별	N (%)
부경험	남자	67(29.0)
	여자	87(41.8)
키스	남자	11(4.8)
	여자	10(4.8)
애무 (허리윗부분)	남자	17(7.4)
	여자	24(11.5)
애무 (허리밑부분)	남자	40(17.3)
	여자	41(19.7)
혼전성교	남자	27(11.7)
	여자	18(8.7)
포괄적 성행동1)	남자	69(29.9)
	여자	28(13.5)
합계	남자	231(100.0)
	여자	208(100.0)

1) 모든 형태의 친밀한 성접촉을 포함함.

다 더 경험이 많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만(Earle & Perricone, 1986), 혼전성교를 제외시킨 혼전 성행동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어 오늘날 성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차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 혼전성교를 제외한 혼전 성행동의 여러 영역에서 성별의 차이가 사라진 것도 주목할 만하며 주체의 민감성과 보수적 규범의 영향으로 여학생들의 경우에 혼전성교 부분에서 실제보다 다소 낮게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성별에 따른 특성

〈표 4〉에서는 남자대학생들이 혼전 성행동에 관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나타나 있다. 남자대학생들에게는 관계적 측면이 혼전 성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으로는 데이트파트너의 성태도와 일치, 신앙심, 상황적 측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들에게는 첫째로 관계적 측면, 둘째로

현재 파트너에 대한 사랑, 데이트분위기와 술에 취한 것, 세째로는 임신과 성병에 관한 두려움과 부모와 도덕에 대한 위배, 그리고 네째로는 파트너의 숫자 등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대학생 모두에게 관계적 측면만이 공통변수로 나타났다. 관계적 측면은 데이트파트너와의 상호간 애정과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파트너와 혼전 성행동의 관여에 대해 얘기하는 것, 결혼의 사 등을 포함하므로 애정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혼전 성행동에 더 관여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 준다. 남자대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성태도가 데이트파트너와의 성태도와 비슷하고 친구들이 자신의 성경험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응답자의 혼전 성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성경험이 친한친구나 또래집단의 성경험과 비슷하다는 항목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표 4). 이것은 혼전 성경험에 있어서 친한 친구나 또래집단의 영향을 밝힌 Sack, Keller와 Hinkle의 연구(1984)를 비롯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며 오늘날 청년들의 개성과 다양성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표 4〉 남자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a

변 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	SE B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관계적 측면	.051	.013	.399****
데이트파트너의 성태도	.289	.076	.312****
신앙심	-.129	.059	-.169*
상황적 측면	.048	.024	.207*
(상 수)	.310		
R ²	.551*****		
Adjusted R ²	.529*****		
n	257		

* p< .05 **** p< .0005 ***** p< .00005

a: p=.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들만 표시되었음.

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표 5)에서도 같음. 〈표 6〉~〈표 9〉에서는 다중파트너의 도덕성은 제외되었고 데이트경험이 포함됨): 개인의 보수적 성태도, 혼전순결, 데이트기간, 파트너수, 나이, 친밀증진, 즐거움, 분위기, 가족의 성태도와의 일치, 가족의 보수적 성태도, 친구, 대중매체, 종교, 파트너 성태도, 두려움, 이유, 관계적측면, 상황적 측면, 현재파트너를 사랑, 과거 파트너를 사랑, 부모의 혼전성허용 및 다중파트너의 도덕성.

(표 5) 여자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a

변 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	SE B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관계적 측면	.031	.013	.250*
현재파트너에 대한 사랑	.120	.027	.400*****
데이트분위기, 술	1.070	.244	.394****
성병, 임신의 두려움	-.095	.032	-.253**
데이트파트너의 수 (상 수)	.176	.084	.186*
R ²	.657*****		
Adjusted R ²	.624*****		
n	232		

* p< .05 ** p< .01 **** P<.0005 ***** p< .00005

a: p=.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들만 표시되었음.

(표 6) 혼전 성경험이 적은 남자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a

변 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	SE B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현재 파트너에 대한 사랑	.083	.027	.406****
관계적 측면 (상 수)	.035	.013	.353*
R ²	1.726*****		
Adjusted R ²	.366*****		
n	.334*****		
n	135		

* p< .05 *** p< .005 **** p< .0005 ***** p< .00005

a: p=.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들만 표시되었음.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 계속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신앙심은 남자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심이 여자보다 남자의 보수적 성태도와 성행동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Mercer와 Cohn(1979)의 연구와도 일치된다. 상황적 요인은 성관계를 가지려는 압력, 술에 취했다거나 파트너나 자신이 성관계를 주도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데 남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 연구에서는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에서 여자대학생들의 경우에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 혼전 성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경우에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 혼전 성행동에 관여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Christopher and Cate, 1985). 또한 여자대학생들은 혼전 성관계를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리고 술에 취해 성관계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 많은 시사를 하고 있다. 이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게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일반적 경향을 보여 준다. 남자대학생들과 차이나는 또다른 특징은 임신, 평판, 성병 등에 관한 두려움, 그리고 부모와 자신의 도덕에 위배된다는 자제심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여자들의 신체적 구조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부모의 기준과 자신의 도덕기준

〈표 7〉 혼전 성경험이 적은 여자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a

변 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	SE B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관계적 측면	.041	.013	.401***
데이트 경험정도	.517	.176	.338**
이전의 파트너에 대한 사랑 (상 수)	.085	.038	.295*
R ²	1.260*****		
Adjusted R ²	.613*****		
n	.577*****		
	162		

* p< .05 ** p< .01 *** p<.005 ***** p< .00005

a: p=.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들만 표시되었음.

〈표 8〉 혼전 성경험이 많은 남자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a

변 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	SE B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관계적 측면	.017	.006	.398**
상황적 측면 (상 수)	.022	.010	.308*
R ²	4.931*****		
Adjusted R ²	.349*****		
n	.317*****		
	96		

* p< .05 ** p<.01 ***** p<.0005 ***** p<.00005

a: p=.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들만 표시되었음.

〈표 9〉 혼전 성경험이 많은 여자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a

변 수	비표준화 회귀계수(B)	SE B	표준화 회귀계수(Beta)
자신과 미래배우자의 혼전순결	-.048	.016	-.483**
파트너에 대한 사랑과 친밀성증진 (상 수)	.292	.105	.450*
R ²	5.394*****		
Adjusted R ²	.518***		
n	.467***		
	46		

* p< .05 ** p< .01 *** p< .005 ***** p< .00005

a: p=.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들만 표시되었음.

에 반하는 것이 혼전 성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신, 평판, 성병 등에 관한 두

려움은 다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AIDS에 관한 인식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행동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자대학생들에게 파트너의 숫자는 혼전 성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데이트파트너의 숫자가 더 많을수록 혼전 성행동에 더 관여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데이트파트너의 숫자는 허용적 성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남녀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변인들이 관계적 측면만을 제외하고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혼전 성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그 영향을 분리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혼전 성행동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

혼전 성행동의 정도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혼전 성허용도에 따라 혼전 성행동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혼전 성행동의 무경험자와 키스나 가벼운 애무를 경험한 경우가 낮은 집단에 포함되었고(〈표 6〉과 〈표 7〉), 짙은 애무와 혼전성교 등은 많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표 8〉과 〈표 9〉).

1) 혼전 성행동이 적은 경우

〈표 6〉에서는 혼전 성허용도가 낮은 남자대학생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현재 파트너에 대한 사랑과 관계적 측면의 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혼전 성경험이 적은 남자대학생들이 키스나 가벼운 애무 등의 혼전 성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데에는 파트너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R^2 = .366$ 로 나타나 이들 변수들이 전체 변량의 37% 정도를 설명하였다.

혼전 성허용도가 낮은 여자대학생들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관계적 측면, 데이트 경험정도, 그리고 이전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61%를 설명하고 있다. 이 변수들은 혼전 성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파

트너를 사랑하고 성관계가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고 생각할수록, 데이트를 진지하게 할수록, 그리고 약혼과 결혼을 고려할수록 혼전 성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남녀대학생 모두에게 혼전 성경험의 정도가 낮을 때 관계적 측면과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 공통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전 성경험이 적은 경우에 남녀대학생들이 혼전 성경험에 관여하는 데에는 파트너에 대한 애정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혼전 성행동이 많은 경우

혼전 성행동의 허용도가 높은 남자대학생들의 분석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관계적 측면과 상황적 측면이 성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황적 측면은 선행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혼전 성경험이 많은 남자대학생들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것은 술에 취했다거나, 성관계를 갖도록 일방적으로 혹은 서로에게 압력을 가했다거나, 혹은 파트너나 자신이 성관계를 주도하는 등의 데이트상황이 혼전 성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임상적 사실을 사료로 뒷받침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여자대학생들에게는 자신과 미래배우자의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과 파트너를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성경험을 하는 것은 혼전 성경험에 각각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표 9〉). 이 두 변수들이 $R^2 = .518$ 로써 전체 변량의 52%를 설명하고 있다. 혼전 성경험이 많은 여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결혼상대자와 자신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혼전 성관계가 비도덕적이라는 보수적 태도가 혼전 성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혼전 성경험이 적은 경우(〈표 6〉와 〈표 7〉)와 경험이 많은 남자대학생들(〈표 8〉)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혼전 성경험이 많은 여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이지만 자신의 성행동은 보수적이라는 이중적인 성태도가 사라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허용적 성태도와 성행동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성관계가 두사람의 친밀성을 증진시킨다는 변수는 관계적 측면에 그 뜻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계적 측면은 혼전 성경험이 많은 남녀대학생들의 성행동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계적 측면은 혼전 성행동의 수준에 관계없이 대학생들의 혼전 성경험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혼전 성행동에 관여하는 데에 관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측면이 남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혼전 성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관계적 측면과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 공통적 변수들로 나타났고, 혼전 성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관계적 측면외에도 남학생들에게는 상황적 측면이, 그리고 여학생들에게는 혼전순결을 반대하는 허용적 성태도가 각각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전 성경험에 관한 상담 및 가족생활교육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가족의 보수적인 성태도는 혼전 성경험의 정도에 상관없이 남녀대학생 모두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는 과거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가족과 부모의 성태도가 영향을 준 것 만큼의 강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신앙심, 부모의 성태도, 친한 친구와 또래집단으로 부터의 영향 등은 신앙심의 부분적 영향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변수들은 외국의 연구결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변수임에도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전에는 중요하였던 변인들의 영향력이 현대에 이르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새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혹은 외국과 우리 문화간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후속 연구에서 계속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VI. 요약 및 결론

사회변화와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오늘날 이에 따른 혼전 성행동의 허용도와 그 관련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5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간 성별에 따른 성허용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특성 및 성행동허용도에 따른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남녀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은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 남녀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성행동은 혼전 성교를 제외하고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오늘날 성문화의 변화와 함께 남녀간 성행동의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전체 남자대학생들에게는 관계적 측면, 데이트파트너와의 성태도 일치, 상황적 측면 등은 혼전 성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신앙심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전체 여자대학생들에게는 관계적 측면, 현재파트너에 대한 사랑, 데이트분위기와 술에 취한 것, 파트너숫자 등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임신, 성병에 대한 두려움과 도덕심 등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파트너에 대한 사랑의 항목과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에 이끌렸거나 술에 취해 혼전 성관계가 일어났다는 항목의 영향력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혼전 성경험이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순간의 분위기에 이끌려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의 분야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경험정도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관계적 측면이 혼전 성경험정도에 관계없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파트너에 대한 사랑은 성경험이 적은 경우에, 상황적 측면은 성경험이 많은 경우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주어 성경험정도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성경험이 많을수록 파트너에 대

한 사랑외에 술이나 데이트파트너로 부터의 압력 등의 데이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에게는 혼전 성경험이 적은 경우에 관계 적 측면, 데이트 경험정도, 그리고 이전 파트너에 대한 사랑과, 성경험이 많은 경우에 파트너를 사랑하고 친밀해지기 위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이 서로 유사하였으나 혼전순결을 찬성한다는 보수적 성태도는 높은 수준의 성행동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것은 혼전 성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태도에 의해서 성경험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혼전 성경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과거에 영향을 주었던 종교 및 신앙심, 친한 친구와 또래집단, 부모의 성태도 등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여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의 실태와 혼전 성행동의 허용도 및 성별에 따른 관련 변인들을 규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학생집단의 문화적 동질성, 또는 교육정도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른 집단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제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실제 성경험보다 다소 낮게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분야의 연구가 미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혼전 성행동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족상담 및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준호 외 (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김찬치 (1986). 한국청소년의 성비행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김한경 (1991).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성문제", 가정의 벗 9월호, pp. 29-38.
- 4) 도종수 (1990).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
- 5) Bauman, K.E. and Wilson, R.R. (1976). Premarital sexual attitudes of unmarried university students: 1968 versus 1972.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976. 5(1), 29-37.
- 6) Bock, E.W., Beeghly, L., & Mixon, A.J. (1983). Religion, socioeconomic status, and sexual morality: An application of reference group theory. Sociological Quarterly, 24, 545-559.
- 7) D'Augelli, J.F. and Cross, H.J. (1975). Relationship of sex guilt and arousal reasoning to premarital sex in college women and in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1), 40-47.
- 8) D'Augelli, J.F. and D'Augelli, A.R. (1977). Moral reasoning and premarital sexual behavior: Toward reasoning about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33(2), 46-67.
- 9) Earle, J.R. and Perricone, P.J. (1986). Premarital sexuality: A ten-year study of attitudes and behavior on a small university campu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2, 304-310.
- 10) Glen, N.D. and Weaver, C.N. (1975). Attitudes toward premarital, extramarital and homosexual relations in the U.S. in the 1970's. Journal of Sex Research, 1979, 15, 108-118.
- 11) Herold, E.S. & Goodwin, M.S. (1981). Adamant virgins, potential non virgins, and non-virgins. Journal of Sex Research, 17, 97-113.
- 12) Hovell, M., Sipan, C., Blumberg, E., Atkins, C., Hofstetter, C.R. and Kreitner, S.(1994). Family influence on Latino and Anglo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73-986.
- 13) King, K., J.O. Balswick, and I.E. Robinson (1977). The continuing premarital sexual revolution among college fem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455-459.
- 14) Knox, D., & Wilson, J. (1981). Dat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 255-258.
- 15) Kurdek, L.A. and Fine, M.A.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young adolescents' appraisals of family climate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Issues*, 14(2), 279-290.
 - 16) Lewis, R. (1973). Parents and peers: Socialization agents in the coital behavior of young adults. *Journal of Sex Research*, 9(2), 156-170.
 - 17) Libby, R.W., Gray, L., & White, M. (1978). A test and reformulation of reference group and role correlates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1), 79-92.
 - 18) Mercer, G. W., & Cohn, P. M. (1979). Gender differences in the integration of conservation, sex urges and sexual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ex Research*, 15, 129-142.
 - 19) Moore, K. A. Peterson, J.L., & Furstenberg, F. F. (1986). Parental attitudes and the occurrence of early sexual activ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777-782.
 - 20) Mosher, D. L. (1979). Sex guilt and sex myths in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Sex Research*, 15, 224-234.
 - 21) Newcomer, S., & Udry J.R. (1984). Mothers' influence on the sexual behavior of their teen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77-485.
 - 22) Robinson, I.E. & Jedlicka, D. (1982). Change in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from 1965 to 1980: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37-240.
 - 23) Robinson, I.E., K. King, and J.O. Balswick (1972). The premarital sexual revolution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Coordinator* 189-195.
 - 24) Sack, A.R., Keller, J.F., & Hinkle, D.E. (1984). Premarital sexual intercourse: A test of the effects of peer group, religiosity, and sexual guil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0, 168-185.
 - 25) Schulz, B. Bohrnstedt, G.W., Borgatta, E.F., & Evans, R.R. (1977). Explaining premarital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A causal model. *Social Forces*, 56(1), 148-165.
 - 26) Simon, W., Berger, A. S., & Gagnon, J. H. (1972). Beyond anxiety and fantasy: The coital experiences of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203-222.
 - 27) Singh, B. K. (1980). Trends and attitudes toward premarital sexu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2), 387-393.
 - 28) Talmadge, W.C.(1985). Premarital sexuality. In L' Abate (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pp435-464, Dorsey Press.
 - 29) Teevan, J. (1972). Reference groups and premarital sexu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288-292.
 - 30) Thornton, A., & Camburn, D. (1987).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Demography*, 24, 323-340.
 - 31) Udry, J.R., Bauman, K.E. & Morris, N.M. (1975). Changes in premarital coital experience of recent decade-of-birth cohorts of urban American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4), 783-787.
 - 32) Woodroof, J.T. (1985). Religiosity and reference groups: Towards a model of adolescent sexual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198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 3002A-3003A.
 - 33) Young, M., (1982). Religiosity, sexual behavior, and contraceptive use of college femal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0, 216-220.